

아랍에미리트 (UAE) 국가신용도 평가기포트

2012. 9.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4

I. 일반개황

면적	84천 km ²	G D P	3,604억 달러 (2011년)
인구	7백만 명 (2011년)	1 인 당 GDP	66,985 달러 (2011년)
정치체제	7개 토후국 연방 절대군주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UAE Dirham (Dh)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3.67 (달러 페그제)

□ 걸프만 연안에 위치한 UAE는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아즈만(Ajman), 후자이라(Fujairah), 라스알카이마(Ras al-Khaimah), 샤르자(Sharjah), 움알카이와인(Umm al-Qaiwain)의 7개 토후국으로 구성된 연합국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과 접경하고 있음.

* 7개 토후국은 각기 독립된 국가로서 독자적인 관할구역 및 역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천연자원, 재정정책, 법률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지고 있음.

□ 세계 7위의 원유(매장량 978억 배럴)와 천연가스(매장량 215조 입방피트)를 보유한 자원부국임. 또한, 동서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 낮은 조세부담, 양호한 물류 및 금융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중동 최대의 중계무역기지로 발전하고 있음.

□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 정부는 건설, 유통,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12월에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혁명이 중동지역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나, UAE는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의 통치 하에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고유가에 힘입어 점진적 경제회복 지속

- 석유산업이 GDP의 40%, 수출의 40%, 재정수입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성장이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생산 및 수출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UAE 석유 매장량의 94% 이상, 천연가스 매장량의 92%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아부다비가 전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2009년 세계경기 침체, 국제유가 하락 및 원유 생산량 감소, 두바이 채무 상환 유예 사태 등의 영향으로 △1.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 국제유가 회복으로 경제성장률이 1.4%로 회복되었음.
- 원유 일생산량 추이(만 배럴): 305(2007) → 309(2008) → 275(2009) → 287(2010) → 332(2011)
- 2011년에는 고유가와 리비아 석유생산 감소분 보충을 위한 석유 증산 등에 힘입어 3.8%의 경제성장을 기록
-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교역·물류·관광 등 산업의 호조로 비석유 부문도 2.7% 성장하였음.
- 2012년에는 주요 교역상대국이자 관광수입의 원천인 유로존의 경기 침체, 원유 생산능력의 한계로 인한 추가 증산의 어려움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3.0% 수준으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 * 현재 생산능력이 한계수준에 이르렀으나, 개발중인 어퍼 자쿰(Upper Zakum) 유전(75만 b/d 규모) 등 생산능력의 확충으로 2015~2016년경에는 원유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물가안정 지속

- 2008년까지 오일머니 유입 확대에 따른 유동성 증가, 수입물가 상승,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10% 이상의 높은 물가상승이 지속되었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두바이월드 채무상환유예 사태에 따른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로 크게 하락하였음.
- 2010년~2011년에는 세계경기 회복,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물가안정이 지속되었으며, 2012년에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세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한 1.5%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고유가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2011년 재정수지 흑자전환

-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석유부문 재정수입 감소, 경제성장 둔화 억제를 위한 확대 재정정책의 영향 등으로 재정수지가 GDP 대비 12.3%로 적자 전환됨.
- 2010년에는 국제유가 회복 및 석유생산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2.1%로 축소된데 이어, 2011년에는 2.7%의 흑자로 전환되었음.
- 2012년에는 복지·교육·보건 등 사회분야와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투자 등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강세 지속으로 GDP 대비 3.3%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e	2012 ^f
경제성장률	3.3	-1.6	1.4	3.8	3.0
재정수지 / GDP	16.8	-12.3	-2.1	2.7	3.3
소비자물가상승률	12.3	1.6	0.9	0.9	1.5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 개선 미흡

- 정부가 관광업, 금융업 등의 육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석유산업이 GDP의 40%, 수출의 40%, 재정수입의 82%를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 및 원유 생산량 증감이 국가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국영기업의 과중한 채무 부담

- UAE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국영기업들(government-related entities: GREs)의 채무부담이 총 1,848억 달러*로 GDP 대비 51.3%에 이를 정도로 과중한 편임.

* 아부다비 1,006억 달러(GDP 대비 45.6%), 두바이 843억 달러(GDP 대비 60.4%)

- 2012년 채무만기 도래 금액은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각각 158억 달러와 146억 달러로, 거액의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아부다비와 달리 두바이는 채무상환 관련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국영기업을 포함한 두바이 정부의 채무 규모는 GDP 대비 92.4%에 이르고 있음. (아부다비 정부의 동 비율은 49.1%)

- 두바이 국영기업의 2012년 중 만기도래 채무 146억 달러 가운데 두바이 홀딩스커머셜운영그룹(DHCOG)은 5억 달러를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였고 국제금융센터투자공사(DIFIC)는 12.5억 달러, 제벨알리 경제구역청(JAFZ)은 20억 달러의 차환에 성공하는 등 채무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상환재원이 자체자금보다는 신규 차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만기 연장이나 차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013~2015년까지 상환하여야 할 국영기업 채무는 아부다비가 388억 달러, 두바이가 296억 달러에 이룸.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원유·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

- 원유의 확인매장량은 2011년 기준 세계 7위인 978억 배럴(세계 점유율 5.9%)로서,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향후 80년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임.
- 천연가스도 매장량이 세계 7위(215조 입방피트, 세계 점유율 2.9%)이며, 구리, 마그네슘, 망간 등 광물자원의 개발 잠재력도 비교적 큰 것으로 확인됨.
- 7개 토후국 중 국토의 86%,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아부다비가 UAE 원유 생산량의 94% 이상, 천연가스 매장량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중계무역기지로서의 역할 수행

- 동서양을 연결하는 곳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낮은 조세부담, 양호한 물류 및 금융 인프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중동, 아프리카, CIS 등 세계 150여개 국가에 재수출(수입품의 40~70% 수준)을 하는 중계무역의 중심지임.
- 특히 석유, 은행 및 상업용 부동산 임대 등의 3개 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과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 관세율도 GCC* 공통관세율인 5%로 낮은 수준임.
-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
- 또한 6개월 이내에 재수출할 경우에는 수입관세를 100% 환급해 주고 있어, 세계 각지의 무역상들이 집결하는 중동 최대의 중계무역기지로 발전하고 있음.

□ 중동 민주화 시위로 인한 반사이익

- 중동의 대표적 관광지인 이집트, 시리아 등의 정정 불안에 따라 두바이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기 위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발길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 정책성과

□ 산업다각화 정책 적극 추진

- 정부는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 탈피를 위해 제조업, 금융서비스, 관광 등 비석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음.
- 도로 개보수, 발전소 건설, 대형 송수관 매설, 주거시설 확대 등 기간 산업에 대한 투자 외에도, 최근에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건설업, 금융, 그리고 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아부다비는 석유산업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철강·금융·관광·항공 등 비석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 2010년 아부다비 GDP 중 석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9.7%에 달함.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 UAE는 비석유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임. 석유·가스 산업 및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개방하였음. 또한 수입대체 의무, 수출 의무, 국산화 의무, 과실송금 제한 등의 외환 통제 등 각종 규제가 없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음.
- 특히 약 30여 개의 자유무역지대 내에서는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가 인정되고, 세금이 없으며, 과실송금이 보장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3. 대외거래

□ 석유부문 수출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가 경상수지 흑자의 근간

- 석유부문 수출과 중계무역 등의 호조에 따른 양호한 상품수지를 바탕으로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 201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원유생산량 증대에 따른 석유부문 수출 대폭 증가 및 비석유제품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폭이 전년 대비 62%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GDP 대비 9.2%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12년 경상수지는 고유가의 지속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여 GDP 대비 10.3% 수준인 4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임.

□ 비교적 풍부한 외환보유액 외에도 국부펀드를 통한 막대한 해외자산 보유

- 대규모 오일머니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으로 비교적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음.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년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251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석유 수입 증가와 외국인투자자의 신뢰 회복에 따른 FDI 유입 증가로 2012년에는 438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임.
- UAE는 약 8,1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아부다비 투자청(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ADIA)은 세계 최대 국부펀드로서 자산규모가 6,270억 달러에 달함.

□ 외채규모는 다소 과중

- 외채규모는 석유화학 및 인프라개발 사업 확대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말 GDP의 43.4%인 1,563억 달러로 다소 과중한 편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e	2012 ^f
경 상 수 지	24,766	9,073	9,135	33,308	39,969
경상수지 / GDP	7.9	3.4	3.1	9.2	10.3
상 품 수 지	62,925	42,069	48,949	79,459	78,285
수 출	239,213	191,776	213,510	281,602	298,621
수 입	176,288	149,707	164,561	202,143	220,336
외 환 보 유 액	31,557	25,070	31,751	36,091	43,769
총 외 채 잔 액	140,639	149,031	152,422	156,302	158,919
총외채잔액 / GDP	44.6	55.1	51.2	43.4	41.1
D S R	5.0	8.1	6.4	7.5	7.6

자료: IMF, EIU.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왕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로 정치적 안정 지속

- UAE의 정치체제는 7개 토후국이 연방정부를 구성(1971년)하는 연방 대통령 중심제임. 최대 토후국인 아부다비의 지도자인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두바이의 지도자인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부통령 겸 국무총리의 통치 하에 정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음.
- 왕족 일가의 장기 집권체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충성심이 높아 정치 불안 요인은 거의 없음.

□ 국내외의 민주주의 요구가 있으나 그 세는 미약

-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가 발표한 2011년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UAE는 167개국 중 149위로 민주주의 단계가 낮음.
- 정치적 다원성의 확대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그 세는 미약한 편임.
- 2011년 4월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주도한 5명이 경찰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국제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있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

- 2011년 1월부터 중동 민주화 혁명이 튀니지, 이집트를 거쳐 리비아, 예멘, 요르단, 모로코를 비롯하여 바레인, 오만 등 GCC 국가로까지 확산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도 잠재적 시위발생 가능 국가로 언급되고 있음. 그러나 UAE는 중동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
- 타 중동 국가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고, 이슬람의 종교적 보수 색채가 덜한 수니파가 집권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약 85%)이 높아서 인근 국가들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관심이 낮음.
- 또한 국민들의 왕실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정보기관·군인·경찰 수뇌부가 왕실 일가로 구성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야당이 존재하지 않아 반정부 세력화가 어려움.

□ 토후국간 소득격차 확대가 잠재적 불안요소로 부상 가능

-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제외한 5개 북부 토후국들이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됨에 따라 토후국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의 불만 증대가 잠재적인 사회 불안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UAE 연방정부는 북부 토후국들을 대상으로 수자원 및 전력시설 확충, 교통망 건설사업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출을 확대하기로 하고 식량 보조금 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민심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단기간 내에 심각한 소요사태로 발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3. 국제관계

□ 서방 및 주변국가와 원만한 관계 유지

- 안보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한 서방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유지
 - UAE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소국으로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안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걸프전 이후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미군 및 프랑스군의 주둔을 허용함으로써 이라크 등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음.
 - 또한 서방국가의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서방국가들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걸프연합(Gulf Union) 결성 구상 등 GCC 회원국간 협력 강화 도모
 - 이란 및 역내 알카에다 세력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회원국간 협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EU와 같은 협력체 도입 고려
 - 그러나 내해(內海) 소유권을 둘러싼 아부다비-사우디아라비아 간 분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2009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가 걸프 중앙은행의 소재지로 채택된 데 불만을 품고 UAE가 GCC 통화 동맹에서 탈퇴하는 등 갈등도 상존함.
- 이란은 최근 수년간 UN 안보리의 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두바이를 주요 무역기지로 활용하며 UAE의 주요 무역파트너로 부상하였음. 그러나 아부 무사(Abu Musa) 등 3개 섬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으로 양국 간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2011년 UAE의 이란 앞 수출은 전체 수출의 6%를 차지하고 있음.
- *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대이란 제재 조치로 대 이란 수출 감소 및 부동산 수요 감소 등 일부 타격을 받을 전망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두바이 국영기업 두바이월드(Dubai World)의 채무재조정 실시

- 2009년 11월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유예 요청
 - 두바이는 석유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외부 투자자금 및 차입금에 의존하여 물류 및 관광업 등의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심화와 부동산가격 급락으로 유동성위기에 직면하였음.
 - 두바이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국유기업 중 하나인 두바이월드는 2009년 11월 채권단 앞 6개월 채무상환유예 요청
- 2010년 9월 총 249억 달러에 대한 채무재조정 완료
 - 채무재조정 금액 중 144억 달러는 90여개 은행에 대한 채무로 5~8년간 만기연장 후 상환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105억 달러는 두바이 정부에 대한 채무로 DFSF*를 통해 출자전환함.
 - * 두바이 금융지원펀드(Dubai Financial Support Fund: DFSF) : 두바이 정부가 2009년 7월 두바이 국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및 구조조정을 위하여 설립

□ 아부다비 정부는 필요시 두바이 정부를 지원한다는 입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80년 6월 18일 (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 투자증진보호협정(2002), 이중과세방지협정(2003), 경제무역기술협력협정(2006), 군사협력협정(2006), 문화협력협정(2007), 원자력협력협정(2009), 항공업무협정(2010)

□ 중동지역 제1위의 수출대상국

- UAE는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1위의 수출대상국이자 제4위의 원유 수입대상국임.
- 2011년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약 220억 달러로 2010년 177억 달러 대비 24.7% 증가하였음.
- 수출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등을 중심으로 약 73억 달러,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 LPG 등을 중심으로 약 148억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건설 수주국

- 2011년말 누계액 기준 우리나라의 UAE 수주액은 599억 달러로 전 세계 수주총액 4,800억 달러의 12.5%를 차지하였음. 특히 2010년에는 한전 컨소시엄의 원전 수주(186억 달러)에 힘입어 수주액이 256억 달러를 기록, UAE 진출 이후 최대의 수주실적을 기록함.

□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2위의 직접투자 대상국

- 우리나라의 대 UAE 해외직접투자는 2012년 6월말 현재 307건, 7억 달러임. UAE는 예멘에 이어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2위의 직접투자 대상국임.
- 주요 투자업종은 건설업(2억 달러), 부동산 및 임대업(1.7억 달러), 도매 및 소매업(1.4억 달러), 제조업(1.4억 달러) 등으로, 타 중동 국가와는 달리 다양한 업종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1년말 현재 약 160여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8개 금융기관*이 진출하여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코리안리, 서울보증보험, 삼성화재

<표 4> 한·UAE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9	2010	2011	주요품목
수 출	4,978	5,487	7,268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등
수 입	9,310	12,170	14,759	원유, 석유제품, LPG 등
합 계	14,288	17,657	22,027	-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2012년 6월 말 누계, 총 투자 기준): 307건, 70,084만 달러

V. 종합 의견

- UAE는 2011년 국제유가 상승과 원유생산량 증가 등으로 3.8%의 경제 성장을 시현하였음. 2012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석유 증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역·물류·관광 등 비석유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3.0%의 경제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 정치적으로는 왕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고 반정부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아 반정부 시위 등 소요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미미하며,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외환보유액 대비 높은 외채 규모, 특히 국영기업들의 과중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부실화 위험 등이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경상수지 흑자 규모 및 8천억 달러를 상회하는 국부펀드 등 막대한 해외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외채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책임조사역 조예림 (☎02-3779-5720)
E-mail: yrcho@koreaexim.go.kr